

# 오늘 검경수사권 조정법 상정...여야 대치 예고

### 민주 “설 연휴 전 수사권·유치원 3법 처리 목표”

### 한국, 대응방안 고심...“필리버스터 여부 검토 중”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처리에 재시동을 걸겠다고 예고하면서 잠시 ‘숨 고르기’ 양상을 보였던 여야간 대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6일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설 연휴 이전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5건의 법안을 모두 처리할 예정이다.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 때처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한 ‘조끼기 입시국회’ 전법으로 이를 관철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이 끝까지 필리버스터 전략을 고집한다면 이전처럼 계속 ‘조끼기 입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처리해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검경수사권 조정의 대부분을 담은 형사소송법 통과 이후에는 필리버스터 카드를 접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내심 기대하는 눈치다.

다른 관계자는 “검경수사권은 사실상 형사소송법이 전부로, 나머지 법안인 검

찰청법은 조직·기구 편제에 대한 것”이라며 “게다가 한국당이 유치원 3법에 필리버스터를 하기엔 여력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 당시 과반으로 무장한 ‘4+1’ 대오 앞에 수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한 한국당은 이번에도 뚝뚝한 대책은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한국당은 우선 필리버스터 방침을 고수

하고 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협상기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선거법·공수처법과 달리 검경수사권 조정 취지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전처럼 ‘원천 반대’를 주장하기보다는 일단 민주당과의 협상을 시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경우 선거법이나 공수처법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협상 가능성을 열어

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새로운보수당 당기 흔드는 공동대표들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보수당 중앙당창당대회에서 하태경 책임대표를 비롯한 공동대표들이 당기를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 문 대통령, 내일 ‘국정방향 제시’ 신년사

### 한반도 비핵화·외교·안보분야 메시지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7일 2020년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앞서 9시 30분부터 신년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5일 밝혔다.

문 대통령의 신년사는 TV로도 생중계된다. 신년사는 25분가량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년사에는 올해 분야별 국정운영 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대한상공회의

소에서 열린 신년 합동 인사회 인사말을 통해 ‘확실한 변화’를 새해 국정운영의 큰 틀로 제시한 바 있다.

인사말에서 권력기관과 공정사회 개혁 등을 화두로 사회분야의 국정목표를 이미 제시한 바 있는 만큼 신년사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외교·안보분야와 정치분야 등의 구체적인 국정운영 방향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신년 합동 인사회 인사말에서 외교·안보 현안과 관련, “상생·변영의 평화공동체를 이뤄낼 것”이라며 “남북관계에서 온신의 폭을 넓혀 노력해 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7일 신년사에서는 북미비핵화대화에 필요한 ‘촉진자역’ 노력의 구체적 방안 등이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확실한 변화’와 함께 새해 국정방향도 다른 키워드로 제시된 ‘상생 도약’과 관련한 국정운영 방향도 주목된다.

청와대가 집권 4년 차에 접어들며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대외외연의 어려움에도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이뤄낼 방안 등에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 국회, 7~8일 정세균 총리후보자 청문회

### “문제없다” vs “의혹 있다”...인준 여부 주목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정국’이 이번 주 막 오른다.

국회는 오는 7~8일 인사청문회를 열어 정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한다. 특히 총리후보자는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인사청문회뿐 아니라 국회 본회의의 임명동의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 후보자가 인준 정국을 통과하면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총리로서 행정부를 통할하게 된다.

인사청문회 개최는 예정대로 진행되겠지만, 심사결과보고서 채택과 본회의에서의 임명동의안 상정 및 표결 등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에 대해 ‘문

제없다’는 입장이다. 청문회는 물론 임명동의의 표결도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사청문회 위 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5일 “문제가 될만한 의혹은 전혀 없다”며 “자유한국당이 흠집내기 식으로 일관하면 국민들이 굽지 않는 시선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입법부 수장’이었던 정 후보자가 ‘행정부 2인자’ 자리를 수락하고, 4·15 총선을 앞두고 여당 인사가 총리로 임명되는 데 따른 문제점을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삼권분립 파괴’라는 주장이다.

또 정 후보자의 친형과의 금전관계 및 증여세 탈루 의혹, 재산신고 누락 의혹,

2004년 경희대박사학위 논문표절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철저한 검증을 바라고 있다.

이에 따라 청문회 이후 3일 이내에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심사결과보고서의 채택불발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는 곧 정 후보자 임명 동의를 위한 표결이 늦춰질 수 있음을 뜻한다.

다만 결과보고서 제출이 늦어질 경우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다.

국회법상 총리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148석) 출석에 출석의원 절반 이상 찬성으로 통과된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들이 특별히 정 후보자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오는 10일 개 본회의를 열어 인준 표결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

## 새보수당 출범·안철수 복귀 ‘요동’

### ‘보수 빅텐트’ 한국당...세력간 이합집산 전망

4·15 총선을 석 달여 앞두고 야권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바른미래당에서 7명의 의원과 함께 탈당한 유승민 의원은 5일 새로운보수당 창당했다. 정계복귀를 선언한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은 설 연휴 전 귀국한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이달 중 ‘보수 빅텐트’를 세워 안철수·유승민계를 포섭한다는 전략이다. 유승민계가 떠난 바른미래당 역시 다른 야당과의 통합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통합 논의의 물리적 마지막 선이 1월 말~2월 초인 점을 고려하면 1월 한 달간 각 세력의 밀고당기기와 이합집산이 거듭될 전망이다.

한국당은 총선 승리를 위해 반드시 보수통합을 성사시킨다는 입장이다.

우선 통합대상은 새보수당이다. 그러나 지난해 가을부터 본격화한 물밑 논의

는 여전히 결실을 보지 못한 채 양측의 기싸움만 가열되고 있다.

유승민계는 한국당이 주도하는 ‘판’에 수동적으로 동참하는 식의 통합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 유승민계 의원은 “한국당이 ‘허리를 굽히고 들어오라’고 요구하는데, 대화가 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유승민계는 한국당과의 물밑 논의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총선 준비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중앙당 창당 이후에도 오는 12일 총선을 비롯해 경북·제주·강원 시도당 창당을 계획 중이다.

안철수 전 의원의 정계 컴백도 야권 정계개편의 핵심 변수다.

애초 안 전 의원의 바른미래당 복귀가 점쳐졌으나, 손학규 대표가 ‘돌아오면 당의 전권을 주겠다’는 말을 반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는 분위기다. /연합뉴스

## 청 출신 공직자 총선 도전

### 수석 등 60명 대거 출사표

올해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공직자의 공직 사퇴시한(지역구 출마 기준)인 오는 16일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예비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일찌감치 청와대를 나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1년 가까이 지역구를 뒹고 있는 인사들부터 이번 주 청와대 개편을 통해 나오는 인사들까지 총선에 대거 도전장을 내는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5일 “이번 총선에 ‘청와대 출신’으로 출사표를 던지는 후보가 줄잡아 60여명에 이를 것으로 당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민행배 전 사회정책 비서관(광주 광산출), 신정훈 전 농어업 비서관(나주·화순), 백재욱 전 선임행정관(영암·무안·신안), 박시종 전 선임행정관(광주 광산출), 정진숙 전 행정관(광주 북구출) 등이 이미 출사표를 던지고 바둑 민심을 놓고 있다. /연합뉴스

곡성군 공고 제2020-1호

### 곡성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135번지 일원에 공원(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곡성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곡성군 단계별 조례」 제4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2일

#### 곡 성 군 수

1. 건 명 : 곡성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2. 내 용 : 가. 시설위치 :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135번지 일원 나. 시설구분 : 공간시설(공원) 다. 시설내용 : 도시계획시설(공원) 세부조성계획
3. 열람기간 : 2020. 1. 2. ~ 2020. 1. 16.
4. 열람장소 : 곡성군 환경축산과, 오곡면사무소
5. 곡성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도서 :
  - ①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공간시설
  - 공원결정 조서

구분	도면번호	공명	사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고
신설	①	침실습지 수변공원	수변공원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135번지 일원	- 중) 133,700 133,700	

□ 공원결정 사유서

도면번호	공 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①	침실습지 수변공원	수변공원신설 (A=133,700㎡)	○ 침실습지 침실습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생태교육 공간제공

6. 의견제출 -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환경축산과 ☎(061)360-833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시 2020. 1. 16.까지 열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으로 곡성군 환경축산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매 광고 안내

전남매일 광고는 전화 및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모집·매매·부동산·공고·영업·분양·모임

- 광고국 062) 720-1016, 1017
- 팩 스 062) 720-1020
- 이메일 jnmi1000@hanmail.net

### 전남매일

지방자치 시대 동반자 분권시대 선도자

투고를 기다립니다 E-mail : jnreviews@daum.net

구독문의 062) 720-1006

### 부실 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 등 각종 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은행 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영업직	채권추심직	법무사 및 금융계 은퇴자 특별대우!
신입·경력직 모집	신입·경력직 모집	

### 새한신용정보(주)

062.227.0337 | 010.3602.6324

광주지사 광주지방법원 후문 앞

NAVER 드림꽃도매 검색

###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축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 경조화환 6만원

시의 기타지역 추가비용 발생

Tel, 062) 233-9961 Fax, 672-9961 동협 박백성 302-0316-649511